



1

인도 장인들의 동반자 나니마르키나

나니마르키나(Nanimarquina)의 양탄자는 울퉁불퉁한 선 맛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래픽이나 작은 직물 조각을 일일이 맡아서 엮은 독특한 질감이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보는 순간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이 제품들은 인도 북쪽의 작은 마을 보팔(Bhopal)에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디자이너가 이 궁벽한 곳의 장인들과 협업하는 방식이다.

19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한 나니마르키나는 20년 넘게 양탄자를 전문으로 디자인하는 회사다. (아라비안나이트)에나 나올 법한 전통적인 문양의 양탄자가 아니라 실험적이고 독특한 양탄자다. 나니 마르키나(Nani Marquina)라는 여성 디자이너의 이름이 그대로 고유 브랜드이자 회사가 됐는데, 마르티 귀세(Marti Guixé), 하비에르 마리스칼(Javier Mariscal) 같은 스페인 디자이너와 협업하면서 스페인을 대표하는 디자인 회사가 됐다. 현재는 론 아라드(Ron Arad), 토드 분체(Tord Boontje) 같은 슈퍼 디자이너부터 멕시코 디자인 그룹 NEL 같은 다소 낯설지만 젊은 디자이너까지 경계 없이 아우르며 함께 작업하고 있다. 화려하고 선명한 디자인이 특징인 나니마르키나의 양탄자를 만드는 건 인도의 작은 마을 보팔의 장인들이다. 구호 물자가 필요할 것 같은 제3세계 공방의 장인들에게 나니마르키나는 좋은 협력자이자 다정한 친구다. 역으로 이들은 나니마르키나의 양탄자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양탄자'라는 브랜드 초기의 콘셉트를 넘어 장인 정신이 더해진 제품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준 귀한 자원이다. 이들의 인연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텐(Potten)' 컬렉션을 위해 새로운 재료를 모색하던 나니 마르키나가 우연히 인도의 보팔재건협회(Bhopal Rehabilitation)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84년 12월 3일 북미의 한 살충제 회사에서 유출된 유독 기스로 보팔 주민 2만여 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이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설립한 단체였다. 보팔에 있는 공방에서, 그리고 전화와 이메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진행한 디자인 개발 과정은 사실 더디고 느렸다. 어렵사리 첫 번째 원형이 완성되었을 때 나니 마르키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보팔로 향했다. 이 인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나니 마르키나는 스페인다운 밝은 색채와 인도의 전통 재료가 어우러진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했다. 장인들이 직물을 일일이 손으로 오리고, 깎고, 붙이고, 기우면서 만들어내는 입체적인 질감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디자인이다.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소재의 재해석은 엉뚱하고 실험적인 양탄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나니마르키나가 장인을 대하는 태도다. 생산품의 60% 이상을 전 세계 45개국에 수출하는 나니마르키나는 수익의 일부를 이 마을에 환원하고 있다. 자선단체 케어 & 페어(Care & Fair)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 인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자 학교까지 세웠다.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결같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나니마르키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닌 장인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생산하는 이들의 양탄자는 2008년 제네바 UN 사무국의 인권상공회회의소에 사용되기도 했다.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이 공간에 나니마르키나의 양탄자가 깔린 것이 의미 심장하다. 글: 유혜영, 사진 제공: 나니마르키나

- 1 인도 북쪽의 작은 마을 보팔에 있는 공방 모습.
- 2 나니마르키나가 인도의 장인들과 함께한 첫 프로젝트인 '포텐', 면으로 만든 바구니다.
- 3 핸드 드로잉을 양탄자로 옮긴 것 같은 '림보(Limbo)'는 하비에르 마리스칼이 디자인했다.



2



3



1



3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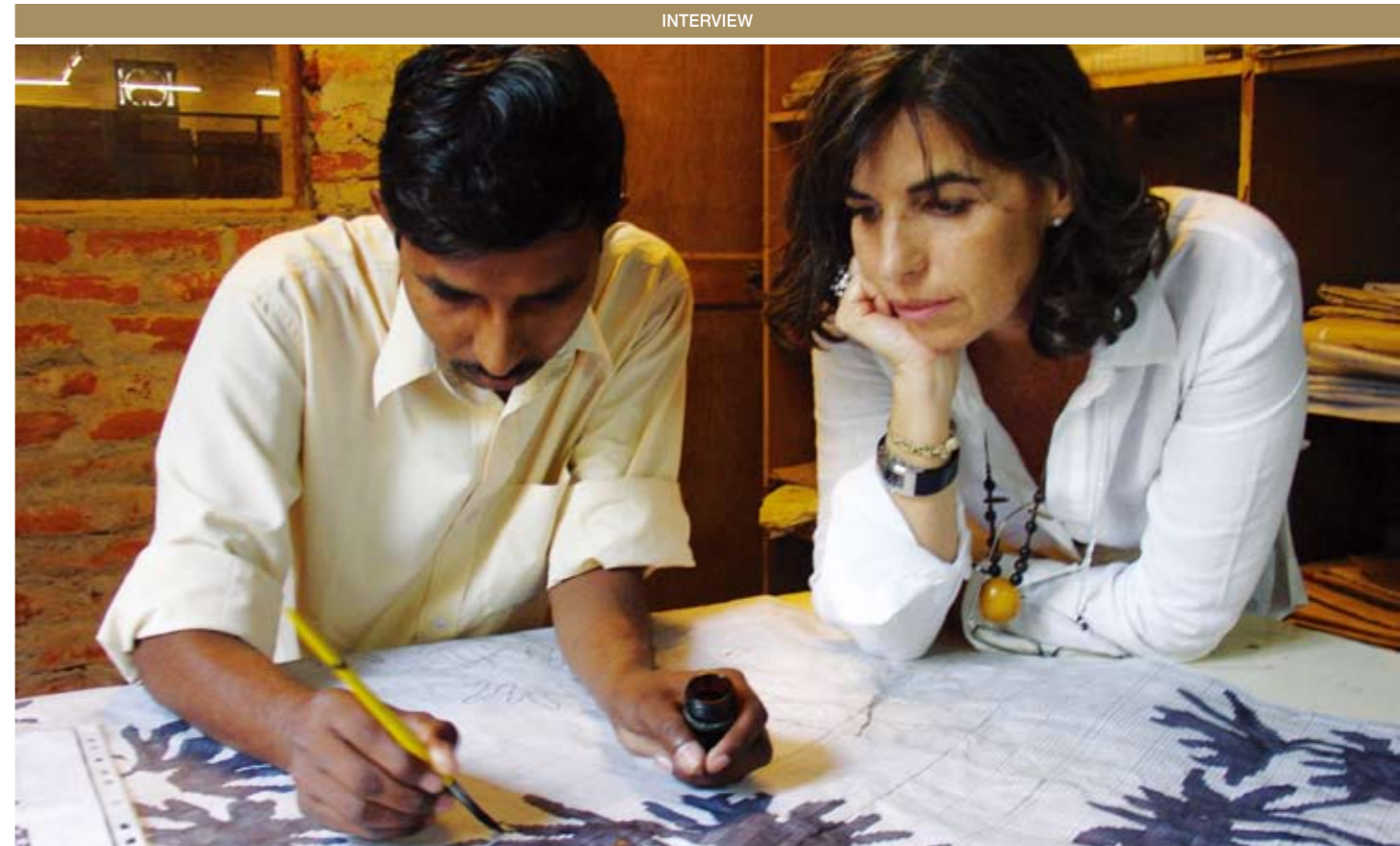
1 나니마크나를 세계적으로 알린 '플라이 카펫(Flying Carpet)'. 아나 미르(Ana Mir)와 에밀리 파드로스(Emili Padros)가 디자인했다. 2 장인이 일일이 선을 따라 그리는 양탄자 '이스탐불(Estambul)'. 하비에 마리스칼이 디자인했다. 3 나니마크나는 판매 수익의 일부를 환원해 보팔에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에서 개최한 그린 공모전에서 최종 우승한 작품을 상품화한 양탄자가 바로 '카라'다. 나니마크나와 케어 & 페어 공동 디자인. 4 꽃잎 모양의 조각 직물을 일일이 손으로 기운 양탄자 '작은 꽃밭(Little fields of flowers)'. 스튜디오 토드 분체가 디자인했다. 5 100% 재활용인 '자전거(Bicicleta)' 컬렉션. 인도 시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자전거 페타이어를 이용했다. 나니 마르키나와 아리아드나 미구엘(Ariadna Miguel)이 디자인했다.



5



1 베를을 이용해 양탄자를 만드는 장인의 모습. 상당히 분업화된 모습이다. 2, 3 장인들이 사용하는 도구. 4 인도에 나니마르키나가 세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나니 마르키나. 5 양탄자는 사람의 피부에 바로 닿는 직물이기에 질감이 중요하다. 이 질감을 일일이 손으로 매만지는 인도의 장인.



나니 마르키나

“장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배운다.
이젠 장인들이 우리 팀원 같다.”

홈페이지에서 장인들의 제작 과정이 담긴 영상을 봤다. 디자이너와 장인이 어떻게 협업하는가? 양탄자를 만드는 일은 섬세한 공동 작업이다. 모든 팀원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장시간 노력해야 한다. 디자이너가 바르셀로나에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면, 장인들은 인도에서 그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한다. 디자이너와 장인 사이의 의사 소통은 이메일로 진행된다. 이후의 과정, 개발, 테스트를 위해 담당자가 직접 인도로 간다. 이는 양쪽 협력자간에 지속적이고 풍부한 교류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기구를 만드는 사람은 나무를 다루고, 양탄자를 만드는 사람은 직물을 다룬다. 다루는 재료에 따라 기술자 혹은 장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다를 것 같다.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방은 없다. 모든 공방과 나니마르키나는 협력 관계다. 나니마르키나는 기술 부분에 대해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장인들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편이다. 장인은 지역적 특색이 강한 사람이다. 당신이 발견한 '지역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인도 지역의 전통 방식과 장인들의 기술을 배우고 관찰하기 위해 자주 인도를 방문한다. 색상, 재료, 제작 기술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디자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장인들의 기술 자체가 디자인적 영감을 주기도 할 것 같다. '자전거(Bicicleta)' 컬렉션이 좋은 예다. 인도 시장에는 자전거 페타이어가 흔하다. 우리는 고무나 실리콘처럼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재료로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하고 싶었다. 동시에 인도의 전통 방법을 이용한 양탄자도 만들고 싶었다.

요즘은 기계로 생산해도 품질이 좋은 제품이 많다. 21세기에 장인이 만든 제품은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세상에서 유일한 제품이라는 가치가 있다. 결과물도 독특적이다. 더구나 사람이 만든다 보니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감도 있다. 물론 전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장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인과 함께 일하는 디자이너와 회사는 유통 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가 중요하다. 이는 이윤적인 측면에서 디자이너와 회사에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다. 나니마르키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결실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과 생각을 듣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인도에 있는 공방들과 협력자로 일하기 시작한 초창기에는 그들의 경험과 전문 기술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지속적인 교류가 쌓이자 현지 장인들이 스페인의 직원들처럼 점차 한팀의 일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다. 우리는 자선단체 케어 & 페어와 함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수익의 일부를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으로 그들의 삶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학교를 설립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진행하고, 여기서 수상한 최종 우승작은 '카라(Kala)' 컬렉션으로 상품화되기도 했다. 그 학생에게도 우리에게도 뜻 깊은 작업이었다.

profile

나니마르키나는 198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양탄자 전문 디자인 스튜디오인 나니마르키나를 설립했다. 초창기에는 유명한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양탄자'로 디자인 콘셉트를 구축했으나 유연히 인도의 작은 마을 보팔과 인연을 맺으면서 가내수공업적인 양탄자로 유명해졌다. www.nanimarquina.com